

“청년작가들 ‘예술의 꿈’ 저버리지 않길”

하정웅 명예관장 5년 만 광주 방문
청년작가초대전·영암 달빛토크전
재일교포 사업가로 컬렉션 시작
1993년부터 국내외 1만여 점 기증
“탄압의 시대 걸어... 광주도 비슷”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개막식 참석을 위해 28일 광주 서구 하정웅미술관을 찾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청년작가들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얼른 만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재일교포 수집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5년 만에 광주를 찾았다.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개막식이 열린 28일 광주 서구 하정웅미술관에서 부인 윤창자 여사와 딸 하우묘씨와 함께 그를 만났다.

하정웅 명예관장은 “작품은 작가의 정신, 작가가 사는 시대, 작가가 말하는 메시지가 깃들어 있어요. 이번 전시에 청년작가들의 무얼 말하고자 했는지 잘 전달되는 것 같아 감동으로 다가온다”며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위상의 변주’라는 주제로 오는 7월16일까지 이어지며 강원제(대구), 유지원(광

주), 김덕희(부산), 안준영(전북) 등 최종 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키워드로 차오르는 달처럼 변하는 가치에 대해 살폈다.

특히 강원제는 회화의 완성과 미완성을 나타낸 추상작품, 유지원은 삶의 터전과 폐허의 대비를 보여주는 설치작업, 김덕

희는 열에너지를 보여주는 추상 작품, 안준영은 가는 펜으로 강박적인 세부 묘사를 보여줬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하정웅 명예관장의 부탁에서부터 시작됐다. 하정웅 관장은 “광주에 계속 수집품을 기증하니깐, 1999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기증조건을 물어왔다”며 “극구 사양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렵게 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작가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렇게 시작할 일이 ‘청년작가초대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재일교포 장남으로 태어나 혹독한 가난 속에서 이주민의 삶을 살았다. 화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시대였다”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술의 꿈을 저버리는 청년들이 없길 바라는 맘이었다. 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야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게 내 가치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한 재일교포 사업가로 미술품을 수집하고 한국의 각 도·시립미술관에 대가 없이 기증해왔다.

1993년 광주시립미술관에 전화화, 괄인식, 송영옥, 이우환 등 재일한국인 작가들의 작품 212점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증한 작품만 1만여 점이 넘는

다.

기증품에는 피카소, 루오, 샤갈, 달리, 헤리 무어 등 전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됐으며 광주시립미술관뿐 아니라 조선대학교, 영암군, 전북도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에 기증했다.

한국문화예술발전회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광주 중외공원에 하정웅 명예도로 기증했으며 2017년 상록미술관의 명칭이 하정웅미술관으로 변경됐다. 2012년 재일교포 최초로 보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부모님 고향 영암에도 기증한 작품이 3900여점 이상 되면서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생겼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700여점을 더 기증할 예정이다.

하정웅의 아버지는 하헌식은 1928년 16세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머니는 1938년 18세 때 일본에 와서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는 1939년 히가시오사카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살았다.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맴돌았다. 사업가로 성공한 이후, 일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찾아 나서는 등 진상규

명 활동을 하고 한국과 일본에 미술품을 기증하는 가교역할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나선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조선은 식민지 시대를 지나왔고 재일교포는 낯선 땅에서 탄압의 시대를 걸어야 했다. 이런 어두운 역사와 비슷한 경험에 있는 곳이 광주라고 생각한다. 광주에 제일 많은 미술품을 기증한 이유다”며 “광주는 군사정권의 만행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쟁취했다. 광주가 울면 나도 울고, 광주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개막식에는 바이올린 제작의 세계적 명인인 진창현 선생이 현악기 4종을 기증해 기증의 뜻을 기리는 개막 축하 공연도 진행됐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청년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빛’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하정웅 명예관장은 하정웅아트홀이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찬,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달빛토크’ 전 참석 등 국내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4월3일 일본으로 돌아간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K-콘텐츠의 전통과 현대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한국미술사 전문가 이태호 교수
10월까지 매주 마지막주 목요일

2023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2023.3.10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

이태호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그림 이야기
K-콘텐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1부	1강	선사시대 미술과 한국화의 원형	3.26, 14.00
	2강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조건의 불화	4.27, 14.00
	3강	조선 초상화, 궁중악사상 불화	5.28, 14.00
	4강	조선 후기 민중미술의 원형	6.29, 14.00
	5강	조선 후기 문인화 연구	7.30, 14.00
2부	6강	서양미술 수용과 전통형식	8.31, 14.00
	7강	모더니즘과 전통사상	9.21, 14.00
	8강	민중미술과 민족형식	10.22, 14.00

2023.3.10(목) 14.00시, 3월 10일 14.00시, 3월 10일 14.00시
문의: 062-270-1111, 062-270-1112, 062-270-1113, 062-270-1114, 062-270-1115, 062-270-1116, 062-270-1117, 062-270-1118, 062-270-1119, 062-270-1120, 062-270-1121, 062-270-1122, 062-270-1123, 062-270-1124, 062-270-1125, 062-270-1126, 062-270-1127, 062-270-1128, 062-270-1129, 062-270-1130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시작된 K-콘텐츠를 알아보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아카데미 강좌 ‘이태호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그림 이야기’의 첫 번째 강의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1부 ‘전통회화의 힘’ △2부 ‘현대회화가 품은 한국미’로 구분돼 총 8개 강의를 진행한다. 한국미술사 전반은 물론 근현대미술까지 접할 수 있다.

1부 ‘전통회화의 힘’은 제1강부터 제5강까지다. 3월30일 첫 번째 강의 ‘선사시대 미술과 한국화의 원형’에 이어 △4월 27일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조건의 불화’ △5월 25일 ‘조선 초상화, 궁중장식화와 민화’ △6월 29일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7월 27일 ‘조선 후기 남종화와 근대수묵화’가 진행된다. 2부 ‘현대회화가 품은 한국미’는 △8월 31일 ‘서양회화 수용과 전통형식’ △9월 21일 ‘모더니즘과 전통사상’ △10월 25일 ‘민중미술관 민족형식’ 순으로 이어진다.

이태호(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교수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나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를 거쳐 전남대학교 교수 및 박물관장, 명지대학교 교수 및 박물관장을 지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근현대 회화까지 한국미술사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초상화·풍속화·진경산수화 등 조선 후기 회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시대 우리 미술

(1991)’, ‘풍속화(1995)’, ‘조선 후기 회화사의 사실정신(1996)’, ‘그림으로 본 옛 서울(1996)’, ‘미술로 본 한국의 예로티시즘(1998)’, ‘한국미술사 기행-금강산 천 년의 문화유산을 찾아서(1999)’,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2008)’,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2015)’ 등이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은 “이번 아카데미 강좌는 이태호 교수를 통해 한국미술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심도 있고 수준 높은 미술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는 대면강좌로 3월 10일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60명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한다.

매달 강좌가 시작되기 2주전부터 미술관 홈페이지(https://artmuse.gwangju.go.kr/)에서 예약 가능하다. 이번 강의는 겨울방학 기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향이 연주하는 베토벤 실내악곡

내달 20일 유·스퀘어 문화관서
GSO 실내악시리즈 첫번째 공연

악성(樂聖) 베토벤이 작곡한 실내악곡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4월2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GSO(Gwangju Symphony Orchestra) 실내악 시리즈’의 첫번째 공연 ‘Trio for Beethoven(베토벤을 위한 삼중주)’을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실내악곡을 오보에, 바순, 플루트, 피아노 등의 악기

로 연주하며 광주시향 목관파트 단원들의 우수한 연주력과 소규모 앙상블의 조화로운 감상을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두 손을 맞잡고’ 변주곡 C장조 WoO.28로 공연의 문을 연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에 나오는 노래 ‘우리 두 손을 맞잡고’를 베토벤이 실내악 연주로 편곡한 곡이다. 베토벤은 돈 조반니가 체를리나를 유혹하며 부르는 노래 ‘우리 두 손을 맞잡고’를 듣고 영감을 받아 ‘두 대의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을 위한 곡’으로 편곡했다.

이어 베토벤이 작곡한 실내악곡 ‘2대의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을 위한 3중주’를

연주한다. 세 개의 악기로 선율을 복잡하면서도 응집력 있는 방식으로 엮어내 아주 매력적인 곡이다. 또 18세기 말 유행했던 세레나데 형식을 엮을 수 있다.

마지막을 장식할 ‘플루트,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WoO.37’은 베토벤이 1780년대 후반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한 백작 가족을 위해 작곡한 실내악곡이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수석단원 김영주를 주축으로 차석단원 송애리, 송용주가 오보에 삼중주를 선보인다. 또 플루트 차석단원 박소현과 바순단원 김남훈, 피아니스트 김동준이 서정적인 트리오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권은 전석 1만원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내달 7일까지 13개분야 170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3 ACC 시민오케스트라’에 참여할 단원을 오는 4월7일까지 모집한다.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주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민 참여 공연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특히 그동안 성인 아마추어 음악인 중심이었던 단원 모집을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참여연령을 크게 낮췄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오케스트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75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ACC재단은 지원자에 대한 서류 심

사와 오디션(3분 자유곡 연주)을 거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13개 분야에서 단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단원들에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와 함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오는 10월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개최하는 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 무대에 서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